

LS산전,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배선용차단기·자동화 핵심제품 본상

LS산전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LS산전은 차세대 전력 솔루션 Susol Smart MCCB(수술 스마트 배선용차단기)와 자동화 핵심 제품 iXP2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프로덕트-인더스트리/툴' 부문에 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립 디자인 기관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매년 우수한 디자인에 상을 주는 행사다.

이번에 디자인 상을 수상한 '수술 스마트 MCCB'와 'iXP2'는 LS산전 주력 사업인 전력과 자동화 솔루션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수술 스마트 MCCB는 공장이나 빌딩 내



LS산전의 자동화 핵심 제품 iXP2.



/LS산전

부 각종 장비 및 주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을 사전에 차단해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 핵심 전력 기기다. iXP2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들을 통제하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사용자와 기기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HMI 제품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산업용 기기로는 드물

게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텁25에 선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은 물론 디자인 경쟁력을 공식 인정 받았다"며 "고유의 PI(Product Identity)를 확대 적용해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현대글로비스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굴... 최대 1억 지원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 'スマートムーブ チャレンジ'에서 5개팀에 총 상금 12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종합물류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 3개사의 임원들이자

난달 현장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10여개 팀 가운데 입상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스타트업 '오토하우머치'팀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동차 리스 및 중고차 렌탈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해 혁신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신규사업화 가능성을 인정 받은 팀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



이현복 현대글로비스 종합물류연구소장(왼쪽 두 번째)과 강지훈 오토하우머치 대표(왼쪽 세 번째)가 17일 오후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최우수상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한다. 선정된 팀은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19일 (음 1월 20일)



36년생 돈을 사랑으로 대해보라. 48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60년생 에디슨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2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은 웃어버려라. 84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37년생 외출 시 상비약을 먼저챙겨라. 49년생 순진하게 고민에 넘어가지 마라. 6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3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5년생 숨은 실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38년생 감 뇨라 배 뇨라 간섭하지 마라. 50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62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74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86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39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마라. 51년생 역사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도 여행. 63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75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둘다. 87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40년생 고목에 꽂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2년생 삶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64년생 마음은 별이리도 딸 것 같으나 차중할 때. 76년생 멀리서 반기운 친구가 찾아온다. 88년생 아직보다는 부족한 공부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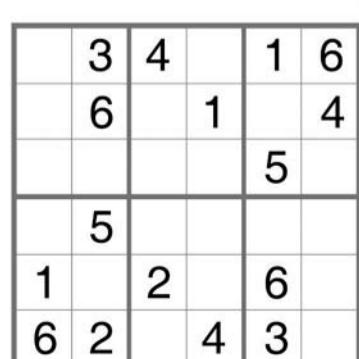
41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53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65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77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89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출제: 손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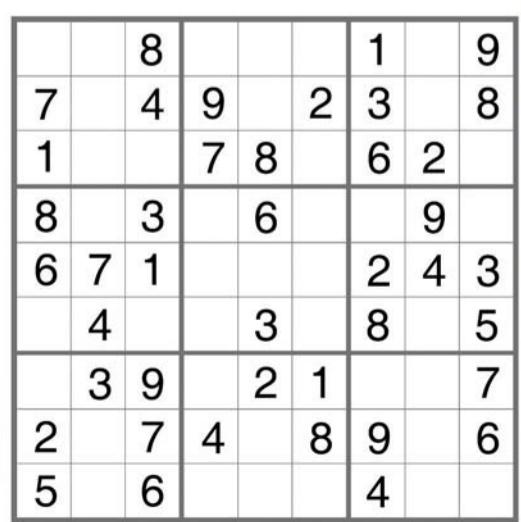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艰辛劳动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2x3 박스에 1부터 6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꾸는 퍼즐입니다.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정답

6	2	5	4	3	1			
1	4	2	3	6	5			
3	5	1	6	4	2			
4	1	6	2	5	3			
5	6	3	1	2	4			
2	3	4	5	1	6			
5	8	6	3	7	9	4	1	2
2	1	7	4	5	8	9	3	6
4	3	9	6	2	1	5	8	7

부동산 규제와 풍선효과

기자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마다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역 표심을 우려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값이 치솟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

12·16 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관망세를 띠자 대출이 막힌 매매 실수요자는 전세로 빌을 돌리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매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호가가 수억원씩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같이 개발호재를 품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 12·16 대책 이후 2개월만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자가 모인다. 인구밀집 지역에 규제를 하기 보다는 부동산 수요가 급등하는 원인을 분석해 지혜로운 공급정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ywj964@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예측의 공식



전 세계 뉴스 방송의 말미엔 항상 일기예보가 뒤따른다.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 기온은 하루 중에 어느 정도의 높낮이가 있는지, 비가 오고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불지 등을 아는 활동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옛사람들은 정확한 일기의 예측을 위해 작은 벌레떼들이나 새들의 움직임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전날 밤 구름에 달무리가 생기는지 아닌지 등의 무수한 관찰과 경험치에 의해 일정한 예측치를 추정해 내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날씨의 변동치를 예측하는 것처럼 인간 운명에 예측을 가능케 하는 어떤 로직(LogIc)을 발견해 냈다. 이는 드러나는 자연현상의 원리가 인간세계에도 통용된다는 직관이 발휘된 것이다. 인간 역시도 자연 일부분이며 따라서 만물에 공통되는 생성과 변화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는 실증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공고한 통계학률 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역(易)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된다. 왕좌의 호랑이를 탄생시킬 수 있으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삶의 비바람이 돌아치는 시기를 읽을 수 있다면 피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람막이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 선인들이 선험(先驗)하였기에 후손들에게 역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여 삶의 여정에 활용하도록 한 유산이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과도 다른 것이며 무조건 기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과도 다른 것이다. 역(易)은 미신이 아니다. 삶의 여정 현재에 적용되는 사회공학이요 사회과학이다. 궁금한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현재 운이 좋은 대운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게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이장규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중앙일보(주)
인쇄인	광고문의 / 독자센터
일간 메트로	서울 기0026 2002년5월28일 제43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기5011 2017년3월09일 제0491호